

## 대학 재학 중 비정규노동과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

김 성 훈<sup>1)</sup>

### 요 약

이 연구는 대학 재학 중의 비정규노동 경험이 대학 졸업 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여성 대졸자를 분석한 결과는 대학 재학 중에 임시, 일용 등의 비정규노동을 하는 것은 대학 졸업 후에 실업과 비정규노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재학 중의 비정규노동이 취업 또는 정규직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정보의 습득과 축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I. 머리말

최근 한국 노동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는 한국 경제와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는 정규노동자에 비해 고용의 안정성이 낮고 노동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 비정규노동의 증가를 가져오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의 비정규직 증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대학 졸업자라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흐름이 겹쳐져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산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을 더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과 대학 졸업자의 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1995년의 51.4%에서 2008년의 83.8%로 크게 높아졌다. 그 결과로 대학 졸업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취업을 하는 현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2000년의 23만 명에서 2009년의 34만 6천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대졸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적으로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나빠지고 있음을 뜻한다.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나빠지는 현상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 중의 비정규노동 경험이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 재학 중 비정규노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국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이 임시, 일용 노동과 같은 비정규노동을 학업과 병

1)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학과 조교수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노동 자체도 기술의 습득과 훈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대학 재학 중에 하는 비정규노동은 학업의 부담 때문에 기술의 습득과 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 결과로, 비정규노동을 하는 대학생은 직업을 통해 기술을 제대로 익히지도 못하고 학업에도 전념하지도 못하여, 졸업 후에 정규직 취업을 하는 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대졸자의 비정규직 문제를 분석할 경우에 대학 재학 중 비정규노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분석은 그 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대학 재학 중 비정규노동 경험이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 II. 선행 연구와 이론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비정규노동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다. 하나는 비정규노동을 ‘가교’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노동을 ‘덫’으로 보는 것이다. 가교의 관점은 비정규노동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경험이 청년 노동자가 나중에 정규직 취업을 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된다는 것이다. 덫의 관점은 비정규노동은 노동자에게 수준 높은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노동자를 계속 비정규직에 묶어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관점 가운데, 대학 재학생의 비정규노동은 덫의 관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비정규노동자는 업무의 성격이 일반적이고 기술의 수준이 낮을 경우에 고용되는 경향이 있다. 대학 재학생은 대체로 지적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학업의 부담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술과 헌신을 요구하는 노동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학 재학생이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을 할 경우에, 그 노동은 시간제 노동이나 임시 노동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비정규노동은 기술의 습득과 축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노동이기 때문에, 비정규노동 경험자는 졸업 후 노동시장의 성과가 뒤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을 하는 대학생은 학업에 전념하는 대학생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졸업 후의 취업에 필요한 인적 자본을 쌓을 기회가 적게 될 것이고, 따라서 졸업 후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비정규노동이 제공하는 기술과 경험의 수준과 질이 다양하고 높다면, 비정규노동은 덫이 아닌 가교가 될 수도 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술과 경험이 고용주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비정규노동자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기회와 제도가 작업 현장 안팎에서 사회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 제도가 없다면, 비정규노동은 노동자를 계속 비정규직에 묶어 두는 덫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대학생의 재학 중 노동 경험을 분석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 대학생의 재학 중 노동은 비정규노동이 대부분이고, 졸업 후에 더 나은 노동시장 성과를 얻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우선 이병희(2003)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휴학생을 제외한 4년제 대학 재학생의 취업률이 18.5%에 이르며, 취업 대학생의 59.0%는 임시직,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지방 대학생의 노동 경험의 실태와 영향을 분석한 이상록(2004)은 재학 중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진로 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직장 체험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학 재학생의 취업이 주로 비정규노동임을 감안하면, 직장 체험이 졸업 후에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정도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병희(2003)는 중앙고용정보원의 2001년 ‘제1차 청년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재학 중의 노동 경험은 학교 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키지만, 첫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높이지는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박성재·반정호(2006)도 재학 중의 노동 경험이 졸업 후에 첫 일자리를 더 빨리 얻게 하지만,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구체적으로, 재학 중 노동 경험은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 수준은 높이지만,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임금 수준은 낮춘다는 것이다.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도 분석되고 있다. 중앙고용정보원의 2003-2005년 ‘제3-5차 청년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한 채구묵(2007)은 경기, 인천 지역 대학 출신 대졸자와 학교 성적이 좋은 대졸자가 취업을 더 빨리 함을 보여 준다. 이는 한국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할 때 대학 소재지와 학업 성취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Ⅲ. 연구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한국교육고용패널 고등학교 3학년 집단이다. 이 집단은 2004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므로, 이 집단 가운데 상당수는 2009년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많은 남성이 대학 재학 중 군 복무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여성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sup>2)</sup>

대학 재학 중 비정규노동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과 2008년의 패널 자료에서 대학 재학 중 비정규노동 경험을 나타내는 변수를 뽑아내고, 2009년 패널 자료에서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된 변수를 뽑아낸다.<sup>3)</sup> 노동시장 성과는 실업 여부와 고용 형태로 측정한다. 대학 재학 중 비정규노동 경험이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분석에서 통

2) 2009년 패널 자료에서 대졸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실제로 66.17%에 이른다. 앞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자료가 좀더 축적되면, 남성을 포함한 전체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3) 2005년과 2006년의 패널 자료의 대학 재학 중 노동 경험 관련 변수 가운데는 비정규노동을 나타내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학 재학 중 비정규노동 경험은 2007년과 2008년, 즉 대체로 3, 4학년의 비정규노동 경험을 뜻한다.

제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제 변수로 대학 소재지, 학점, 가구 소득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수 정의**

변수	정의
실업 여부	2009년 7월 현재, (0) 비실업(조사 시점에 취업을 한 상태이거나 조사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음), (1) 실업: 조사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구직 활동을 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함.
고용 형태	2009년 7월 현재, (0) 정규직, (1) 비정규직.
재학 중 비정규노동	2007년 7월 현재 또는 2008년 6월 현재, (0) 안 함, (1) 함. 비정규노동은 임시 또는 일용 노동.
대학 소재지	2008년 6월 현재, (0) 비수도권, (1) 수도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학점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학기별 평균 평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의 평균.
가구 소득	2008년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의 자연대수값.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실업 여부와 고용 형태가 이분 변수이므로 분석방법으로는 이항로짓분석을 사용한다. 통제변수 가운데 가구 소득은 결측값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 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분석과 포함된 분석을 따로 실시한다. 종속변수가 실업 여부일 때의 분석과 고용 형태일 때의 분석은 서로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종속변수가 실업 여부일 때는 전체 여성 대졸자 759인을 분석하지만, 종속변수가 고용 형태일 때는 여성 대졸자 가운데 임금노동자 584인만을 분석한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표 1>에 제시된 변수 정의에 따라 이 연구의 표본의 특성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표본의 특성**

특성	빈도	비율(%)	특성	빈도	비율(%)
<b>전체 여성 대졸자</b>			<b>대졸 여성 임금노동자</b>		
실업 여부			고용 형태		
비실업	708	93.40	정규직	444	76.29
실업	50	6.60	비정규직	138	23.71
재학 중 비정규노동			재학 중 비정규노동		
안 함	543	71.54	안 함	423	72.43
함	216	28.46	함	161	27.57
대학 소재지			대학 소재지		
비수도권	270	70.68	비수도권	200	70.42
수도권	112	29.32	수도권	84	29.58
특성	평균	표준편차	특성	평균	표준편차
<b>전체 여성 대졸자</b>			<b>대졸 여성 임금노동자</b>		
학점	75.21	12.15	학점	75.46	12.38
월 평균 가구 소득	387.95만 원	921.95만 원	월 평균 가구 소득	347.15만 원	632.13만 원

#### IV. 분석결과

이 연구의 주요 분석은 대학 재학 중의 비정규노동 경험이 실업 여부와 고용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실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분석의 결과를 우선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대졸 여성의 실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1		모형 2	
	계수	유의확률	계수	유의확률
재학 중 비정규노동 했음(기준: 안 했음)	0.988	0.022	0.613	0.348
수도권 대학(기준: 비수도권 대학)	-0.161	0.734	0.069	0.917
학점	0.003	0.859	0.015	0.607
가구 소득			-0.158	0.523
상수	-3.170	0.025	-3.177	0.160
우도비	-83.603		-39.924	
사례 수	334		171	

주: 종속변수(0=비실업, 1=실업)

<표 3>의 모형 1은 대졸 여성의 대학 소재지와 학점을 통제했을 경우에 대학 재학 중의 비정규노동 경험은 졸업 후에 실업의 확률을 유의수준 0.05에서 2.69(0.988의 역지수)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재학 중에 비정규노동을 하면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여 취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 재학 중의 비정규노동은 ‘가교’보다는 ‘뒤틀’이라고 할 수 있다. 모형 2에서 가구 소득을 추가로 통제하면 대학 재학 중 비정규노동 경험은 졸업 후 실업의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인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가구 소득의 결측값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의 비정규노동 경험이 졸업 후 실업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구 소득 수준에 의해 상쇄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일단 유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는 대졸 여성 임금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분석의 결과를 보여 준다.

〈표 4〉 대졸 여성 임금노동자의 고용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1		모형 2	
	계수	유의확률	계수	유의확률
재학 중 비정규노동 했음(기준: 안 했음)	0.891	0.004	0.842	0.063
수도권 대학(기준: 비수도권 대학)	-0.022	0.947	0.430	0.329
학점	-0.016	0.158	-0.018	0.318
가구 소득			-0.028	0.882
상수	-0.204	0.814	-0.127	0.937
우도비	-134.784		-69.046	
사례 수	248		131	

주: 종속변수(0=정규직, 1=비정규직)

〈표 4〉의 모형 1에 따르면, 대졸 여성 임금노동자의 대학 소재지와 학점을 통제했을 경우에 대학 재학 중의 비정규노동 경험은 졸업 후에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이 될 확률을 유의수준 0.01에서 2.44(0.891의 먹지수)배 높인다. 모형 2에서 가구 소득을 추가로 통제하면, 대학 재학 중의 비정규노동 경험이 졸업 후에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을 유의수준 0.10에서 2.32(0.842의 먹지수)배 높인다. 모형 1과 모형 2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학 재학 중의 비정규노동 경험은 대졸 여성 임금노동자의 비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의미 있게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재학 중에 비정규노동을 하는 것은 정규직 취업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과 축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 V. 맺음말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 재학 중의 비정규노동 경험이 대학 졸업 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 연구는 대학 재학 중에 임시, 일용 등의 비정규노동을 하는 것은 대학 졸업 후에 여성 대졸자의 실업과 비정규노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재학 중의 비정규노동이 취업 또는 정규직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정보의 습득과 축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려면 대학 재학 중의 비정규노동을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재학 중의 시간제 노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의 한계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대학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으로 한정된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가 더 축적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사람들과 남성 대졸자도 분석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박성재·반정호. 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제29권 제3호. 29-50
- 이병희. 2003.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경제논집』 제26권 제1호. 1-22
- 이상록. 2004. 「지방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경험 실태 및 진로준비에의 영향 분석: 전북지역 K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제1호. 5-39
- 채구묵. 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4호. 35-61

❖ Abstract ❖

Nonstandard Work in College and Labor Market Achievement After  
College Graduation

Kim Sungho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nonstandard work in college on labor market achievement after college graduation using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es of the female college graduates show that nonstandard work including temporary or part-time work in college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unemployment and nonstandard work after college graduation. These results are due to the fact that nonstandard work in college does not contribute to the acquirement and accumulation of the information and skills that are useful to employment or standard work.

**Key words:** nonstandard work, standard work, college education, college graduation, unemployment, labor market achievement